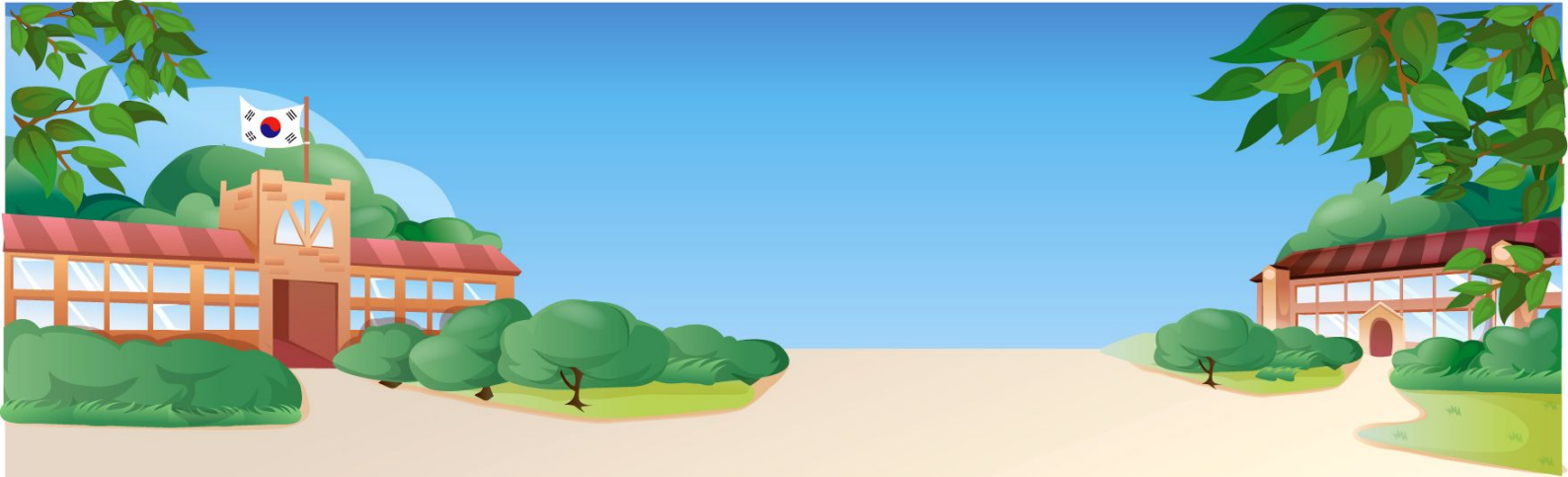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 새롭게 바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왜 중요한가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님들이 교원,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교 운영을 논의하는 법적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무엇을 하나요?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심의기능**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능**을 합니다.


(학교발전기금 관련 사항은 국·공·사립학교 모두 심의, 의결)




학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을  
함께 논의합니다




학교헌장 및 학칙 제정에  
참여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에 대해 함께 설계합니다



건강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살핍니다



학생들의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및 수학  
여행과 수련활동 등 학부모님께서 경비를  
부담하시는 사항을 함께 의논합니다



# 2012년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바뀝니다



“직장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

➔ 방과후 시간, 주말 등 참석이 편리한 시기에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회의장에 가서야 회의 안건을 볼 수 있어  
내용을 검토할 수가 없어요 ”

➔ 회의 7일 전에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안건을 의무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반 학부모들은 회의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

➔ 안건, 발언 요지 등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제가 가진 전문지식으로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  
전문가 참여가 활성화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www.parents.go.kr](http://www.parents.go.kr))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3월초 학교의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학부모로서 지역주민으로서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기회가 펼쳐집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사례

###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봐요 - 서울 J초등학교

40대의 나이로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주변에 또래 친구도 별로 없어서 어디가서 누군가에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학교운영위원 선출 공고 안내장을 보고 용기있게 지원했습니다. 학부모위원 중에서 나이는 제일 많았지만 경험은 제일 부족한 탓에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다가 1년이 되어서야 학교를 위한 운영위원으로서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모니터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예결산심의 위원회 활동 등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이 중심이 되어서 촘촘한 학교로 만들고자 가정통신문도 보내면서 깨끗한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부모가 아이보내기에 편안한 학교로 소문이 나고 있지요.

매일 아이와 함께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보람되기도 하고 아이 또한 자랑스러워 합니다.

아이에게 내년에는 임기가 끝나서 더 이상 운영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더니 너무나 아쉬워 합니다.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주관 2011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수기 공모 수상작임

